

2022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2.08.04. (목) 14:00~15:30
2. 장소 : 행정관 중회의실
3. 참석자(총 14명 중 11명 참석)
 - 가. 교원대표 : 김형중(의장), 박상도, 한승준, 민병걸
 - 나. 직원대표 : 조현미(부의장)
 - 다. 학생대표 : 추시연, 허예진
 - 라. 조교대표 : 박신혜
 - 마. 동 문 : 최형심, 이귀우
 - 바. 외 부 : 김태현
4. 불참자 : 김종현(교원대표), 이혜숙(직원대표), 백성기(외부)
5. 심의 안건
 - 가. 대학원 중장기 발전계획(안)
 - 나. 대학원 학과 신설 및 개편(안)
 - 다. 대학원 학칙 개정(안)

1. 심의 안건 - 대학원 중장기 발전계획(안)

대학원장이 「2022-2030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중장기 발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한다.

- 학부와 대학원은 차별이 돼야 하고,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원은 연구자를 길러내는 것이 본질이 아닌가 생각된다. 연구역량 축적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연구소에 관련한 사항은 없는지 궁금하다.
- 이번 대학원 중장기 발전계획(안)은 대학원생의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교원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부분은 우리 대학 전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총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서울여자대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연구원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부뿐만이 아니라 대학원도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운영이 될 때, 함께 발전할 수 있다.
- 특수치료 전문대학원이 폐지되고, 이번에 대학원 학과 신설(안) 안건으로 올라온 예술심리치료학과가 일반대학원으로 신설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 휴먼서비스대학원은 특수대학원이다. 특수대학원에 설치된 예술심리치료 분야 대학원은 국내 여러 곳이 있다. 그러나 심도 깊은 교육과 연구를 통해 박사 학위까지 진학하고자 하는 수요를 감안하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으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여자대학교가 가진 교수진의 맨파워와 학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 산·학·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산학협력 중점 교수의 역할과 실질적인 활동 방안은 어떠한가.
 - 본교의 산학협력 중점 교원의 수는 굉장히 적은 편이며 다른 곳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산업계의 기술혁신 등과 연계하면서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산업체, 전문인력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산·학·연 협력은 산학협력중점교수만의 책무는 아니며 전임 교원과 행정인력이 모두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한다.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 과제정의서를 만들어서 세부 과제별 정성적 성과지표와 정량적 성과지표로 하고, KPI와 연결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각 세부 과제별 정량적인 부분에서 관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적 지표라도 정리하여 매년 점검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030년을 목표로 달성하고자 하는 부분은 연차별로 배분하되, 단계별로의 수정이나 병합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학문, 학제 간 융합을 위해 전공을 개설하는 방식 외에 대학원에서 융합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 타 대학에 존재하는 ‘학과 간 협동과정’이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 지난 2021학년도 2학기부터 학문 간의 융복합을 하기 위한 기초로써 교원 간의 전공 소통을 위한 학술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이번에 전공 신설을 신청한 예술심리치료학과 역시 참여 교원들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인하여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학과 심사를 신청하게 되었다. 학과의 규모가 작기에 하나의 학과만을 가지고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우므로 학과 간에 뭉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학과 외의 융합학과에서 학생들이 새롭게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

- 중장기 발전계획은 단순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이 중요하다. 세부 실행 과제들을 보면 학과뿐만 아니라 행정 부서의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경우 대학원과 행정부서들과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세부적인 목표치가 나와 학과와 부서가 함께 움직여야 완벽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다음 단계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 한 가지라도 계획을 세우면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학교 전체 구성원들과 이 계획들을 실행해 나가는 틀을 만들어보고자 최대한 노력하겠다.

2. 대학원 학과 신설 및 개편(안), 「대학원 학칙」 개정(안)

대학원장이 일반대학원에 학과 간 협동과정 예술심리치료학과(미술심리치료 전공)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신설(안)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과 간 협동과정 바이오헬스공학과 신설(안), 휴먼서비스대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학과, 인성교육학과, 문헌정보학과, 영유아보육학과, 스포츠헬스케어학과의 학과 구분을 전공으로 구분하는 개편(안)과 휴먼서비스대학원에 사회복지실천행정전공 신설(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학원 학과 신설 및 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한다.

- 협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부에서 전공 단위로 운영하며, 학과 간 융복합 연계 형식으로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치료전문대학원 폐지 이후 개설되는 대학원의 ‘예술심리치료’라는 전공에 일부 교원 만이 예술, 심리치료의 전문가이고, 다른 타전공 소속 교수들은 융합 전공으로 만들기 위하여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 대학과 비교할 때 학부에 전공이 있고, 대학원의 심화 된 형태의 과정이 아니기에 타 대학의 ‘예술심리치료’ 전공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 미술치료와 관련하여서는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소속이셨던 교수와 상담전문가 교수가 함께 분야를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현대미술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술심리치료의 관점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미디어를 활용한 미술치료, 예술치료와 연계할 수 있다.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전공을 진행한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이 많지 않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석사, 박사 과정의 수요 등을 활용하여 충분히 우리 대학원으로 유인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

- 바이오헬스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과 관련하여 참여교수 중, 해당 전공 분야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전공의 교수진이 포함되어 있다. 이분들이 바이오헬스 전공 안에서의 역할이 궁금하다.
- 바이오헬스는 실질적으로 두 가지 전공에 해당한다. 바이오와 화장품 공학이다. 예를 들어 교과 과정을 보면 ‘화장품 디자인’이라는 교과 등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분야가 있기에 디자인 전공 교수가 참여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해당 교수들이 독립적으로 강의를 맡지 않는다고 하여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강의의 부분적으로나 팀티칭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 대학원 학과 신설 및 개편(안),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3. 회의록 공개 범위 논의

- 의장이 2022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4. 차기 회의 일정

- 특별한 안전이 없는 경우, 내년 1월 경 예산 자문을 위해 차기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의장이 15시 3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2022년 8월 4일

의 장 김 형 중

(서명)

부 의 장 조 현 미

(서명)

평 의 원 박 상 도

(서명)

평 의 원 한 승 준

(서명)

평 의 원 민 병 결

(서명)

평 의 원 박 신 혜

(서명)

평 의 원 추 시 연

(서명)

평 의 원 허 예 진

(서명)

평 의 원 최 형 심

(서명)

평 의 원 이 귀 우

(서명)

평 의 원 김 태 현

(서명)

간 사 하 성 호

(서명)